

노사상생만이 해법이다

1 빈사의 지역경제

시민호응 못받는 ‘연례 파업’ 경기회복 고비 때마다 찬물

광주경제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호산업·남양건설·금광기업 등 지역 간판급 건설사가 줄줄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지역 건설업이 붕괴하더니, 지역 경제를 지탱해주던 기아자동차가 파업이라는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지고 만다.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노사 상생’밖에 없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시리트로 짚어본다.

연세 도산의 충격은 지역경제를 공포 얼어붙게 하고 있다. “다음은 어디냐”가 업계의 인사말이 된지 오래다.

다행히 제조업이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의 매출 증대, 광산업의 호황이 지역경제의 숨통이 되고 있다. 특히 스포티지R의 출시로 대박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선전은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지역 최대 제조업체다. 지역 총생산액의 24.6%, 지역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인력도 6700여 명에 달한다. 협력업체까지 2만여 명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13% 규

모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4~5월 연속 3만대 생산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달 스포티지R이 본격 수출되면서 다음달 중에는 사상 첫 월간 4만대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도 호조다. 기아차는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4만14대를 판매해 전월보다 3.9%,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월간 판매에서 4만대를 넘은 것도 올해 처음이다. 점유율도 지난달 31.3%에서 34.6%로 3.2%포인트 높였다.

문제는 노조다. 노조는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를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

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8일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과 12일 주말특근을 거부, 광주공장에서만 이미 2000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기아차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된 이유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전임자 임금지급 때문이다. 회사 측은 “노조가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면서 회사 측에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파업은 폐속질주 중인 기아차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행위로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와 회사 이미지 실추, 광주공장 50만대 재편 사업의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사 직전의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사 상생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폰서 검사’ 특검법 오늘 처리

여야, 세종시 수정안 이달 표결 합의

한나라당 이균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 6월 임시국회 내에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PD수첩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의 행안위에서 논의,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실업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다란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판타지아 지상전

▶스키아본 가운 작 '배' 40×30cm

오색찬란 유리로 만들어낸 신비

이탈리아 베니스의 전통 유리 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이 오는 19일부터 8월22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전시장(구 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광주일보 독자들을 위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유리 공예 작품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이탈리아 베니스 무라노 섬에서 400여년 간에 걸쳐 6대째 유리공예 전통을 이어 오고 있는 스키타본(Schiavon) 가문의 대표 작품, 유리 원료에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이 가문의 비법인 철 성분을 넣어 독특하고 영롱한 빛깔을 만들어 냈다.

이탈리아 전통 뿔단배를 형상화했고, 유리로 표현할 수 있는 직선과 곡선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천연 재료에서 얻은 다양한 색깔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태극전사 오늘밤 또한번 일낸다

8시30분 아르헨 전...허정무 “마음껏 즐겨라” 신바람 축구 주문

관련기사 3·4·5·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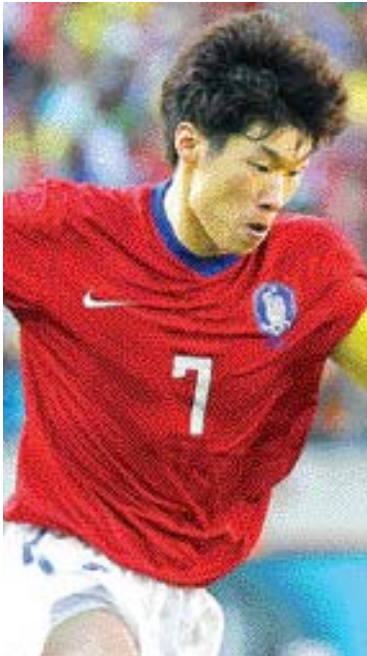


‘내 친 김에 아르헨티나 꺾고 2연승으로 16강 가자’ 태극전사들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이번에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유쾌한 도전’에 나선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7일(한국시각) 오후 8시30분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지난 12일 조별리그 개막전에서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한 대표팀은 자신감에 차 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한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물러서지않는 한판승부를 펼치겠다는 기세다.

허정무 감독은 그러나 아르헨티나보다 16강 진출 여부를 판가름할 나이지리아와 3차전에 올인하겠다는 선수들에게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즐겨라”며 신바람 축구를 주문했다. 허정무호는 아르헨티나와 경기에



〈박지성〉

서 승리한다면 2승으로 일찌감치 16강 티켓을 확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자신감을 충전하며 상승세를 탄 태극전사들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허정무 감독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다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메시〉

허 감독은 스페인과 모의고사 때처럼 박주영(AS모나코)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하는 4-2-3-1 전형을 구사한다.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박주영의 뒤를 받친다. 박지성은 중앙에서 박주영의 공격 찬스를 만드는 한편 기회가 되면 직접 득점을 노린다.

이에 맞서는 아르헨티나도 스트라이커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4-2-3-1 전형으로 맞불을 놓는다.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이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중심으로 테베스·이과인이 공격 3각편대를 이뤄 막강 화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이 강한 압박으로 베론과 마스체라노에서 메시에게 이어지는 볼 패스를 차단하고 상대 공격수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 빠른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린다면 예상 밖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대한민국	B		아르헨티나
<17일 20:30>				
	그리스	B		나이지리아
<17일 23:00>				
	프랑스	A		멕시코
<18일 03:30>				
스코어 보드				
뉴질랜드 (1위) 1	F	1 (1위)	슬로바키아	
코트디부아르 (1위) 0	G	0 (1위)	포르투갈	
브라질 (1위) 2	G	1 (1위)	북한	

영산강, 황룡강을
친수·레저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나주시청 - 광주본부 업무부

광주광역시청 - 남양청

2010. 6. 17. 17:00